

상식 '밖'에 있는 책의 상식

▲성인 남자의 오른쪽 고환이 왼쪽 것보다 무거운 이유 ▲무엇이 두려워서 레닌은 가명을 151개나 사용했을까 ▲해군 제독의 대명사 넬슨은 늘 배멀미에 시달렸는데... ▲맥주를 마시며 구두를 닦는다면 죽을 수 있다 ▲사하라 사막에도 폭설이 내렸다 ▲히브리어에는 총각이라는 단어가 없다 ▲키 큰 사람은 우주인이 될 수 없다 ▲피카소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는데 담배 연기 때문에 살아났다 등등.

「기네스 북」 보유편?

최근 출간된 「책 속의 책」(전3권, 우리문학사)은 '요상스런 세계신기록'의 집대성인 「기네스 북」의 권위에 도전장을 던진 상식 백과사전이다. 응용·종교 심리학을 전공한 재미교포 폴 임씨가 20여년 동안의 자료수집 과정을 거쳐 흥미있는 상식거리를 총망라한 이색 출판물이다. 우리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새로운 사실들을 1문1답의 형식으로 수천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제1권 제9장은 '책'에 관한 항목들인데, 그중 일부를 소개한다.

▲세계에서 종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 미국. 연간 59,336,000톤을 생산한다. 한국은 250만 톤. 한국보다 인구가 20배 많은 인도는 155만 톤.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 소련. 연간 54,569종을 출간한다.

▲세계 최초로 이동도서관(Bookmobile)을 생각해낸 사람 : 나폴레옹. 그는 독서광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에도 약 5만권의 책을 싣고 다녔다.

▲날조 전문 전기작가 : 파즌 웹스, 조지 워

싱턴의 정직함을 강조하기 위해 '아버지의 벚나무를 자른 뒤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는 벤자민 프랭클린, 윌리엄 펜의 전기도 조작했다.

▲하나의 저작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 마가렛 미첼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쓰기 위해 자료수집에만 20년을 바쳤다. 기본(Gibbon)도 「로마제국 흥망사」를 쓰는 데 20년을 소비했고, 웹스터의 「웹스터 사전」은 완성되기까지 36년 걸렸다.

▲가장 많이 인쇄된 책 : 물론 「성경」이다. 303개 언어로 번역됐으며, 부분 번역까지 합치면 1581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1815년부터 1975년 사이에 약 25억권 정도가 인쇄되었다고 추정된다.

▲최초의 섹스북 : AD 500년경에 씌어진 인도의 「카마수트라」(최근 동문선에서 번역출간되었다). 중국의 「소녀경」, 20세기 서양의 「이상적 결혼」이 모이면 세계 3대 성서(性書)라 할 만하다.

▲가장 큰 도서관 : 미국 워싱턴 소재 국회 도서관. 수장한 책과 팜플렛이 1981년 현재 2천만권에 가깝다. 책을 진열하는 선반의 길이는 851km.

▲「e 빠진 불어」? : 「사라짐 La Disparition」이란 프랑스 소설에서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알파벳 'e'가 하나도 없다. 제임스 투르버의 「o 빠진 영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었다.

▲「제목(title) 장사」의 황제 : 할데만 줄리우스. 그는 책제목과 책표지를 바꾸는 일만으로 백만장자가 되었다. 판매량이 저조한 2천

종 이상의 책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재출간했고, 또 성공했다. 데오 필 고티에르의 「황금 양털」을 「금발머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연간 6백권에서 5만권으로 판매량을 수직상승시켰다. 빅토르 위고의 희곡 「즐거운 왕」을 「쾌락에 빠진 왕」으로 제목만 바꾸어 4배 이상의 매상고를 올렸다. 쇼펜하우어의 「논쟁술」은 「합리적인 논쟁의 수단」으로, 토마스 드 퀴시의 「대화에 관한 글」은 「당신의 대화를 다듬는 법」으로 고쳐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다. 특이한 일은, 제목과 책표지만 수정할 뿐 목차나 본문내용은 절대 손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지 : 세계 최초의 금서는 「논어」. 「오비드 신화집」은 8세기경 로마에서 금지당했으며, 1497년에는 단테의 시와 함께 부정한 책으로 간주되어 금지당했다. 1928년에는 미국 세관에서 통관이 금지되었고, 1929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러하였다.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작품들은 1835년에서 1849년까지 금지되었으며, 1954년 미국 일리노이주 당국자들은 성인만이 읽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레오 톨스토이의 「K소나타」는 스위스·영국·독일·미국·소련·이탈리아 등지에서 출판이 금지되었다. 한편 세르반테스의 「동키호테」는 스페인에서 한때 금서 리스트에 올랐는데, 그 이유는 책 안에 쓰인 단 한 문장때문이었다고 한다. “성의 없는 자선사업은 아무 가치가 없다.”

출판저널

통권 제165호 / 1995년 3월 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정혜옥 이성수
 한 강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업무차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재)한국출판공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공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MANY LIVES,
·MANY MASTERS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실화! 충격 없이는 단 한 페이지도 읽을 수 없다!”

누가 전생윤회를 부정하는가!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86개의 전생을 산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읽는 전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진실, 압도해 오는 생의 의미—

실화—저명한 정신분석의가 한 여자의 정서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 그녀가 기억해 낸 것은 바로 그녀의 전생들이었다...! 전생과 환생의 증거, 영혼의 행로를 보게 된 그들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대)/팩시 739-8791

브라이언 와이즈 지음/김철호 옮김 5,000원/서점에 있습니다.